

이미지의 인지적 기능에 대한 탐색적 고찰: 사고유발기능을 중심으로

이모영*

¹선문대학교 상담산업심리학과

Exploratory Study of the Cognitive Function of the Image: Focus on the Thought-Evoking Function

Mo-Young Lee^{1*}

¹Department of Counseling & Industrial Psychology, Sunmoon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사고유발기능을 중심으로 이미지의 인지적 기능에 대해 탐색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이미지의 사고유발기능이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콜라주 미술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후 심층면접을 통해 이미지의 사고유발기능을 중심으로 이미지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지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미지는 대상에 주의를 기울여 더욱 면밀히 처리하도록 하고, 몰입을 증가시켜 사고를 유발하며 이를 통해 대화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의 인지적 기능에 대한 본 연구는 우리 인간 인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과학과 예술의 융합에도 유의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cognitive function of the image, focusing on the thought-evoking function of the image. Collages artworks were developed to determine how specifically the thought-evoking function of an image takes effect in actual cases. In addition, the cognitive response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on the image were analyzed, centering on the thought-evoking function of the image, through an in-depth interview. The image performs the function to concentrate attention on a specific object and to process it more thoroughly. The image increases the immersion of the participants, evoked thought and activated conversation. This study probed the cognitive function of the image and is expected to greatly expand our understanding of human cognition.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sight into the integration of science and art.

Key Words : Cognition, Image, Qualitative Analysis, Thought-Evoking Function

1. 서론

최근에 삶에서 이미지의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1,2]. 이 이미지의 사용은 광고와 디자인과 같은 일상 삶의 영역을 넘어 학문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미지의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21세기 정보통신기술과 첨단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달과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실시간적으로 소통되고, 대부분의 지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는 수단으로 더 이상의 경쟁력의 척도가 될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단순한 지식의 전달과 습득은 교육적 실천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

(2012S1A3A2033783)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SSK사업 <한국인의 문화인지 구조 연구>의 연구비로 지원받은 것임을 밝힘.

*Corresponding Author : Mo-Young Lee(Sunmoon Univ.)

Tel: +82-41-530-2537 email: moyoung@sunmoon.ac.kr

Received May 20, 2014

Revised (1st May 28, 2014, 2nd June 9, 2014)

Accepted June 12, 2014

측되고 있다. 사람들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대상을 색다르게 경험하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의미와 감동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최근의 인문학에 대한 열풍, 감성적 이미지 광고의 급격한 증가 등은 이와 같은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미지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미지가 지니고 있는 인지적 기능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3-8]. 이미지는 이해와 소통의 수단으로 항상 언어와 비교하여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미지는 단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하는 효율적인 수단 정도로만 여겨져 왔다. 의사소통에서 언어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언어가 사고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확산되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이미지가 지니고 있는 이해와 소통의 기능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이미지의 이해와 소통 기능을 다시 부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문자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이미지가 지배하는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성과 사고 중심에서 지각과 감성 중심으로 문화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삶에서 이미지 사용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이미지를 처리하는 우리 인간 인지에 대해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우리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인지의 한 방식, 즉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면서 이해하는 인간의 인지 방식에 대해 새롭게 조명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외부 대상에 대한 지식을 표상하고, 이 표상 지식을 논리적으로 조작하여 사고하는 기존의 인지 개념으로는 풍부한 상상력을 갖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공감하고, 이미지로 소통하고, 감동하는 마음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공감, 소통, 감동, 따뜻함과 같은 심리적 측면들은 그동안 학문의 영역에서 등한시되고 있다. 오로지 논리적 추론과 같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만이 인간인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역량으로 간주되었고, 이와 같은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학문적 논의와 교육적 실천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1,2].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며 감동하고,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하는 학생을 보고 고통을 공감하고 연민의 정을 느끼고, 풍부한 상상력을 갖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마음의 작용 등은 최근에 우리의 삶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공감, 따뜻함, 감수성, 통찰, 창의성과 같은 인간 경험의 다양한 측면들이 어떤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는 인간 마음의 이해를 위한 학문적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9].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본 논의는 사고유발기능을 중심으로 이미지의 인지적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미지의 인지적 기능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분석하기 위해 미학에서의 논의, 예술심리학의 영역에서의 시각적 사고 논의, 그리고 예술기반연구 또는 이미지 기반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후 사고를 유발하는 이미지의 인지적 기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플라쥬 미술작업을 하도록 한 후에 이들을 대상으로 플라쥬 작업에 나타난 이미지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이 이미지들이 사고를 유발하는 기능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우리 인간 인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여 지식을 진보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지가 인간 인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미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학문에서는 물론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논리적 사고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주지주의 교육시스템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인간의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도 인간의 마음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치료 이론과 실천들에서 효과적인 대안적인 기술들이 개발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이미지와 인지

영어로 ‘안다.’ 혹은 ‘알고 있다.’는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종종 ‘I Know’와 ‘I See’를 혼용한다. 언어가 형성되었을 무렵부터 사람들은 아는 것이 ‘본다’는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는 ‘의견, 견해’를 의미하는 ‘Opinion’ 대신에 ‘view’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 이는 자신이 보는 시각이 곧 자

신의 의견이 된다는 생각을 반영한 좋은 예라고 하겠다.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에서도 이런 성향이 드러난다. ‘보다’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브아르(voir)’라고 하는데, 흥미롭게도 이 단어 앞에 ‘a’를 붙이면 ‘아브아르(avoir)’, 즉 ‘가지다’라는 뜻이 되고, 또 그 앞에 ‘s’를 하나 더 붙이면 ‘사브아르(savoir)’, 그러니까 ‘알다’라는 단어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용어들에 근거한다면, 보는 것에서 좀 나아가 소유하게 되고, 소유하게 되면 알게 된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미지를 통해 본다는 행위가 소유, 혹은 지각하고 있는 사고하는 행위와 맞닿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10].

이미지와 인지의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이미지는 통상 지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5]. 이미지가 이해의 한 형식으로 인식론적 이슈와는 관련이 없다는 견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플라톤에 의하면 참된 이데아는 비판적 이성을 통해서 습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고, 이미지는 진리가 의거하는 비판적 이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써 참된 지식에 도달하는 데 방해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와 같은 지식에 대한 플라톤의 견해는 이후 서양 학문의 역사에서 지성과 합리성 그리고 과학의 개념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결과 수학을 위시하여 과학을 중시하는 서양학문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한 논의 역시 이와 같은 철학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그려졌고, 사고하는 것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으로 간주되었다. 이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인간 마음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 철학 그리고 심리학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 합리적 사고의 능력을 밝혀 개발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적 가치로 등장하게 되었고, 교육적 실천에서도 이에 기반을 두어 주지주의적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인간 경험에 대한 학문적 논의 역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추론에 의해 구성되는 의식적 경험에 국한되어 왔다. 직접 경험을 통한 무의식적이고 감각적 경험들은 소홀히 다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 이미지 사용의 증가와 함께 무의식적이고 지각적으로 처리되는 인간 경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11]. 직접 경험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습득하는 앎의 중요성은 루이 암스트롱의 한 일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루

이 암스트롱에게 재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암스트롱은 ‘그걸 묻는다면 당신은 결코 재즈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실제로 재즈가 무엇인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앎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또한 재즈를 직접 듣고 경험함으로써만이 알 수 있는 재즈에 대한 앎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재즈에 대한 앎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재즈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는 의식이고 논리적인 설명보다 더욱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재즈가 무엇인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재즈가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다.

식양의 하늘에 번져가는 저녁노을, 온몸을 감싸는 오케스트라의 전율 등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직접 경험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앎의 유형들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앎은 말로 전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인간 경험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12].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경험을 구성하는 앎을 표현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예술의 중요한 기능이다.

직접 경험을 통해 이해되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앎이 미적 경험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대인관계 속에서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느낌과 정서들을 경험한다. 이와 같은 미묘한 느낌들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은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해와 소통의 기능으로 예술의 인지적 기능에 관심을 갖고 예술이 왜 중요한지, 예술이 왜 등한시되지 말아야 하는지를 줄기차게 주장한 학자가 지각심리학자이자 예술심리학자인 R. Arnheim이다. 그에 의하면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한다. 그러나 너무 적게 본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늘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10-20년 동안의 학교생활을 통해서 소외를 경험한다. 학생들은 언어, 개념, 수의 세계를 다루는 것을 학습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어떻게 실제의 세계를 경험하는지를 배우지 못한다. 이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이러한 문화에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진다. 우리는 각각의 사건과 사물들이 우리의 감각에 제공하는 풍부한 의미를 지각하는 능력을 상실한다[13].

이와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지각적으로 사고하는 인지능력을 Arnheim은 시각적 사고(visual thinking)라고 규정하고 있다. Arnheim에 의하면 시각적 사고는 시각적으로 사고하는 인지의 한 형태로서 사물의 본질을

발견하고, 탐구하고, 이해하는 인지의 한 형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14]. 이 시각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예술이고, 따라서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지각과 그림 그리기와 같은 활동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혼란스러운 경험에 대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 이러한 심리학적 요구는 예술에 의해 아름답게 제공된다. 그것이 왜 예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명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15].

이미지의 인지적 기능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주로 이미지의 사용을 사회과학연구에 통합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사회과학연구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인지의 양식으로 이미지의 사용은 신진학자들을 중심으로 시각문화연구(visual culture studies), 예술기반연구(art-based research), 이미지 기반연구(image-based research)라는 범주에서 논의되고 있다[5-8,16].

그동안 논의된 이미지의 주요 인지적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미지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도록 한다. M. Polanyi에 의하면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17].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예술적 이미지다. 예를 들어 전쟁, 가난, 독성이 있는 폐기물과 환경오염에 대해 언어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이 현상을 이미지로 제시했을 때 경험하는 강력한 임팩트와 비교하여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다[8]. 이 경우 단순히 개념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논의하는 것이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단지 언어적 설명을 부연해주는 부가적인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에 이미지는 본질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지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여 접근할 수 없는 마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미지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물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예술적 이미지는 이를 통해 평소 인지할 수 없었던 것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로 이미지는 공감적 이해를 증진시킨다. 외국의

속담에 '가슴으로 느껴야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A heavy heart can really make a difference)'는 말이 있다. 마음으로 느끼고 이해하는 방식의 앎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추상적 개념적 지식은 사고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피해 학생의 고통을 마음으로 느끼고 연민의 정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때, 훨씬 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미지는 공감적 이해를 증가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례가 베트남 전쟁에서 촬영된 한 장의 사진이다. 이 사진은 미군의 폭격으로 벌거벗은 채 불길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 겁에 질린 소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사진은 전 세계인들에게 전쟁의 공포와 비인간성을 각인시켰고, 그 결과 반전운동을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사실 이 사진이 보도되기 전에도 전쟁의 잔혹함에 대해서 많은 언어화된 기사와 학문적인 주장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이 반전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지가 사람 마음을 움직여 공감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행위 하도록 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8].

이외에도 이미지는 다양한 인지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미지는 체화된 지식을 장려하고, 이미지는 사회정의의 위한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폴라주 미술작업을 실시한 후 작품에 나타난 이미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시행하여, 이 이미지들이 사고를 유발하고 대화를 활성화하는 기능에 대해 질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질적 연구는 그 특성상 의미와 이해의 문제를 내부자적 관점(from the inside)에서 해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질적 연구는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와 행위를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하고 구성하는지의 문제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유에서 대단위의 사례를 대상으로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양적 연구와는 다르게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소수의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선정에서 표집의 대표성보다는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적절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표본추출의 적절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경험, 내적 감성, 무의식 등을 표현하는 이미지를 활용하는 예술 활동에 거부감이 적고, 표현이 비교적 솔직하며 자유로운 미술전공자, 심리학 전공자, 미술치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총 8명으로 참여자의 주요한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Name	Age	Gender	Major	occupation
A	29	Female	Psychology	student
B	23	Female	Visual Communication Art	(typography designer)
C	29	Female	Costume Design	be unemployed
D	23	Female	Fine Art	pottery designer
E	25	Female	Visual Communication Art	Art therapist
F	43	male	Psychology	documentary Film makers
G	24	Female	Fine Art	student
H	30	male	Psychology	Company Employee

본 연구에서는 연구 도구로 미술 콜라주 기법을 선택하였다. 연구 도구로 사용된 잡지 사진 콜라주 기법은 1972년 Burk와 Provancher가 평가기법으로 미국 작업치료지에 게재한 것이 최초이며, 이후 杉浦京子에 의해 치료기법으로서 연구 개발되어 활용하고 있다[18]. 잡지사진 콜라주 기법은 잡지에서 원하는 그림을 콜라 가위로 오리거나 손으로 찢어서 자유롭게 붙이는 방법으로, 사진이나 인쇄물의 그림을 오려 붙이며 얻는 우연한 효과를 통해 작업자의 무의식이 언어표현보다 정확하고 구체적, 집약적 상징표현으로 다양하게 표출된다.

콜라주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비교적 빠르게 작업한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눈에 보이고, 잡지,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통해 의사소통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콜라주 작업을 통해 사람들은 평소 의식을 통해서 알 수 없었던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콜라주의 이와 같은 특징은 이미지를 통해 이해하고 소통하는 이미지 사유, 즉 이미지의 인지적 측면을 드러내 보이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콜라주 기법을 연구의 도구로 활용하여 이미지의 인지적 측면, 이미지가 어떻게 사고를 유발시키는지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는 다양한 종류의 잡지를 탐색한다. 탐색 중 맘에 끌리는 이미지의 한 면 전체를 빠른 속도로 찾아 충분히 많이 모을 때까지 집중하여 수집한다. 수집이 끝나면 충분히 모은 면들 중에서 다시 특별히 눈길을 끄는 이미지만을 가위로 완벽하게 잘라낸다. 오려진 이미지들을 새로운 도화지에 배치해가며 공간을 구성해보는데, 이때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움직여 볼 수 있기 위해 풀칠하지 않는다. 배치가 완전히 끝나면 풀칠을 하여 작품을 완성한다. 이제 이미지들은 완벽하게 하나의 새로운 화면을 구성하게 되는데, 대상자의 의식을 통해 재탄생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검증과 심리적 수정 단계로 완성된 콜라주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대상자 스스로 자신이 사용한 이미지의 의미를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며 작품을 함께 해석한다.

심층면담은 사전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자의 허락을 받아 면담 내용을 녹음했다. 심층면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구의 목적과 익명의 보장, 연구 과정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했으며 연구자와의 면담 자료는 연구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해 심층면담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일대일 면담에서 비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주제에 접근하였다. 먼저,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현장에서 1차 심층면담을 진행하였고, 참여자에 따라 2차, 3차 및 후속 면담을 진행해나갔다. 면담 시간은 매 면담 회기 당 대략 60-120분이 소요되었고,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의 목소리의 강약 고저, 행동유형, 침묵이나 표정 등의 비언어적인 변화도 주시하면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자료의 충분함을 위하여 새로운 주제가 드러나지 않을 때까지 진행하여, 자료 포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종료시기로 잡았다. 1차 면담의 내용을 토대로 2차 면담을 진행해 나갔으며, 모호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보충해나갔다. 면담장소는 참여자가 희망하는 곳에서 실시하였는데, 치료실, 강의실, 스터디실, 카페 등이었다. 연구기간은 콜라주 작업과 심층면담을 포함하여 2013년 10월 25일부터 시작하여 2014

년 3월 말까지 총 5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면담내용을 녹음한 것을 전사한 자료와 현장노트를 주 자료원으로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Creswell[19]이 제시한 나선형 자료 분석의 절차를 기본 모형으로 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이미지 사유에서 사고를 유발하는 이미지의 인지적 기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면담이 종료된 후에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정리된 자료들을 조직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가 녹음파일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전사된 내용과 원자료의 내용을 비교하였으며, 불명확한 부분은 연구 참여자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메모한 현장노트를 참고하면서 면담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후 자료를 반복해서 읽는 과정을 통해 이미지의 인지적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살펴보면, 그들의 의미 있는 면담 내용을 추출하였다. 이후의 지속적인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미지의 인지적 측면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와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구성원 검토(member check) 및 동료검토(peer examination)과정을 거쳤다.

4. 연구결과: 이미지의 사고유발기능

한 장의 그림이 천 마디 말보다 더욱 가치 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사고를 유발하고 대화를 활성화하는 이미지의 인지적 기능을 매우 간결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이미지는 그 특성상 많은 관련된 생각, 정서, 느낌들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은 예술적 이미지의 인지적 기능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잊고 지냈던 많은 생각, 정서, 느낌들을 떠올리고, 대화를 통해 표출하게 된다. 이미지의 이와 같은 인지적 특성은 이미지의 정보처리적 특성에 기인한다[20]. 이미지는 우리가 사고할 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제공한다. 단순히 언어만으로 사고할 경우 주위가 표류하기 쉽고,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직접 점검하기 어렵다. 이때 구체적인 이미지는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감각적 닻(anchor)을 제공하여 더 많은 시간 머무르게 된다. 그리고 이미지는 개인적인 관여를 증가시키고, 고양된 정서적 분위기를 증가시킨다. 이를 통해 이미지는 더 많은 자기 관련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고, 대상에 대한 몰입을 증가시켜 더욱 면밀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미지는 광범위한 인지를 활성화시켜 풍부한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이미지는 사회적 이슈, 심미적 관심, 시대의 트렌드, 개인적 관심과 같은 삶의 다양한 측면들과의 풍부한 연결을 허용하고 조장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더욱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8명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플라쥬 미술 작업을 실시한 후 심층면접을 시행하여 참여자들의 플라쥬 작품에 나타난 이미지에 대한 사고 작용을 사고유발 기능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1] Case A



[Fig. 2] Case B

A의 작품을 구성하는 이미지는 대부분 여유롭게 휴식하며 웃는 사람들, 편안한 모습의 것들이다. 여유로움을 느끼고 싶은 A의 생각이 작품 안에 고스란히 투영되었다. 그림 상단 중앙에 있는 클립트의 이미지는 연구 참여자 A에게 다음과 같은 많은 생각들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클립트의 그림은 휴식과 상관없는 이미지였지만, 한 눈에 속 들어왔다. 이 그림을 내 방 벽에 장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방을 꾸미는 상상만으로도 기분전환이 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림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다 문득 나에게도 저런 연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조건 쉬고 싶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결국 지치고 힘든 심신을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따뜻함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 작품의 우측 중앙에 아주 작게 의미 없이 오려 붙인 남자의 이미지는 숲 속에 사는 요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누군가에게 잠시나마 의지하고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었나 보다.

B는 작품을 통해 방황했던 과거, 현재의 생각 변화,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연구 참여자 B는 면담을 하던 중 아무 생각 없이 오려 붙였던 햄버거의 이미지를 통해 기억하기 싫은 많은 일화를 떠올렸다:

5개월 전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그 일은 나에게 아주 큰 상처여서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기억, 장소, 생활로부터 도피하고 싶어 독일에서 유학하는 친구네 집에서 홈스테이를 두 달 정도 했었다. 그 동안 새로운 생활을 통해 나름의 즐거움이 생겼고 안정정도 찾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햄버거’라는 이름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김햄버거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새로 쓰는 별칭이었다. 그는 갑작스럽게 연락해서 자신이 어떻게 지내고,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는지 상식 밖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해왔는데, 괴로웠지만 연락을 뿌리치지 못했다.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는 나랑 친한 언니랑 연애하게 되었는데, 나에게 연애상담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내 주변의 지인과 연애를 한다는 사실도 처참한 기분이 드는데, 연애상담이라니... 처참한 기분과 분노를 느꼈고 감정이 폭발해버렸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



[Fig. 3] Case C



[Fig. 4] Case D

C의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C는 작품 속 이미지들을 보며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폭발적으로 쏟아내었다.

3년 전 피렌체 두우모에 갔었다.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를 아주 감동적으로 봤었는데, 영화 속 아름다운 거리를 직접 눈으로 보니 가슴이 벅찼다. 게다가 오랜 여행으로 남자친구와 1년 이상 떨어져 있던 터라 마치 내가 냉정과 열정 사이 영화 속 여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거리는 아주 아름다웠고, 남자친구가 그 어느 때보다 보고 싶었다. 그때의 그 아련하고 그리운 그 기분... 잊지 못할 것 같다. 영화 속 OST도 머릿속에 맴돌고... 이

사진을 보는 순간 그때의 아련한 기분이 떠올라 뭉가 눈물이 핑 돌 것 같았다. 지금도 거리의 느낌, 냄새, 다 느껴진다.

D의 작품은 여성의 다양한 신체 이미지들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콤플렉스를 표현하였다. 참여자 D는 차도르를 쓴 여성의 이미지에 스타킹으로 각선미를 강조한 다리 사진을 합쳐 하나의 이미지로 구성하였다. 대상자 D는 이 이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차도르를 쓴 여성들의 이미지를 보는 순간 마음이 불편했다. 동시에 무언가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것은 나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오마주인 듯하다. 나는 십 대 때부터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지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음... 평소 작품 활동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콤플렉스는 이것(차도르를 쓴 여성의 이미지)과 관련 있는 것 같다.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구보다 착하고 정숙한 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실제로 개방적인 지금의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다. 차도르를 두른 여자들의 이미지는 너무 일찍 포기해버린 처녀성(순결)을 떠올리게 한다.



[Fig. 5] Case E



[Fig. 6] Case F

연구 참여자 E의 작품은 평소 자신의 모습과 앞으로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표현하였다. E는 면담 시 왼쪽 상단 거울을 보고 있는 한 여성의 이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작품 안에 사용된 다른 밝은 이미지들은 나의 평상시 모습이지만, 이 거울 이미지는 약간... 어두운? 내가 여러 명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나 자신에 대해 스스로 알고 싶은 욕구인 것 같은데 평소에는 그것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나 자신을 직면하는 모습인 듯하다. 생각해보면 나에게 대한 분노가 많았던 것 같다. 항상 그렇진 않지만, 과거에

내가 왜 그랬나 싶은 후회가 많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몇 차례의 상담을 받으며 스스로를 통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이미지를 통해 무의식중에 있고 있던 그때의 경험이 어렴풋이 떠오른 듯하다. 사실 자기반성이 늘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미뤄두고 있었다.

F의 작품은 F 자신과 관련된 것이 거의 없었으며 단 순히 예뻐 보여 수집된 이미지들로 구성되었다. 몇 번의 심층면접을 통해 중앙에 위치한 겨울나무 풍경 이미지가 F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는 이 이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음... 이 이미지는 춥고 바람 부는 느낌이다. 늘 마음 한 쪽에 있다. 그건 외로운 감정인 것 같다. 생각해보니 예전에 혼자 태백에 여행을 갔다. 그때 본 장면인 것 같다. 왜 갔었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기억이 잘 나진 않는다. 군 대도 가기 전인 20년 전인데... 기억나는 건 산 아래 들이 있고 집이 한 채 정도... 그리고 쓸쓸하고 앙상하게 서 있는 나무들의 풍경이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언젠가부터 그때 봤던 그 풍경의 느낌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다. 앙상하고, 바람 부는 느낌이고 춥다.



[Fig. 7] Case G



[Fig. 8] Case H

G의 작품은 타인에 대한 시선에 대한 콤플렉스와 평소 G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G는 작품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눈의 이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음... 유난히 사람 신체 중에 눈에 가장 관심이 간다. 사실 예전엔 눈도 그렇고 얼굴 자체가 콤플렉스였다. 어릴 땐 외국인처럼 생겨서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많이 받았다. 그게 참 부담스러웠는데, 그때부터 눈과 시선을 엄청나게 싫었던 것 같다. 아... 그랬었다. 또래 아이들의 놀림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싫었다. 생각해보면 저 이미지들

은 어린 시절 내가 느꼈던 그 느낌이다. 따갑고 불편하다. 어릴 땐 사람들하고 말을 거의 안 했다. 누군가 길을 물어 보려고 하면 도망갈 정도였다. 지금 이렇게 눈과 시선을 강조하며 공간을 채운 것은 스스로에 대한 직면이며, 콤플렉스에 대한 도전인 것 같다. 앞으로 이 느낌을 더 정리해 많은 작품 활동을 통해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H는 작품을 통해 그가 꿈꾸는 미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H는 이미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렴풋이 그려왔던 자신의 미래가 선명하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경험을 했고, 이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H의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이미지들은 모두 사랑하는 여자와 앞으로 생길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나의 미래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는데, 사진으로 이렇게 표현하니 쉬웠다. 원래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집을 지을 계획이 있었는데, 잘 지어진 집들의 이미지를 보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렴풋하던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떠올랐다. 내가 지은 집엔 매일 꽃이 피어 있을 것이고, 텃밭도 있을 것이다. 감자든, 당근이든, 파든 무엇이든 심어 경작할 것이다. 생각만 해도 아주 행복하다.

위의 연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은 심층면담이 이루어지는 동안 본인이 오래 붙인 이미지와 관련된 일화를 상세하게 이야기하였으며, 특히 특정한 이미지는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많은 생각, 정서, 느낌을 떠오르게 하여 이야기를 폭발적으로 쏟아내도록 하였다. 특히 이야기를 쏟아내는 그 이미지는 처음부터 연구 참여자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 선택된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다른 이미지와 같이 어떤 이유에서 마음이 들어 선택된 이미지들이다. 플라슈 작업 과정 중에 또는 작업이 끝나고 이미지에 대한 심층면접의 과정에서 어느 한 이미지가 연구 참여자에게 의미 있는 대상, 인물 또는 일화에 대한 기억을 떠오르게 하고 이 생각은 또 다른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켜 사고를 폭발적으로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폭발적으로 생각을 쏟아낼 때 매우 집중하고 몰입하여 사고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사고의 유발은 대화의 소재를 제공하여 대화를 활성화하고, 이 대화의 활성화는 또 다른 사

고의 유발을 불러일으키는 연쇄반응을 불러일으켜 대화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이와 같은 예술적 이미지의 인지적 특징은 예술과 과학이 이해를 추구하는 방식의 차이를 드러내 보인다. 과학과 예술 모두 세상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 그러나 예술과 과학은 추구하는 방식에 서로 차이를 보인다. 과학은 경험을 핵심 원리로 환원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데 반하여, 예술은 경험을 증폭하고 확장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과학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정확하게 추론하는 것을 중시하는 데 반하여, 예술은 대상의 의미 있는 특성을 구성하기 위해 상상력이 풍부한 창의적 사고를 중시한다.

예술적 이미지가 사용될 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문제를 제기하고, 생산적 토론을 유발하고 대화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현상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해야 하는 창조적인 작업이 요구되는 문제에서는 예술적 이미지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우리의 삶에서 이미지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이미지의 인지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3-8]. 이미지의 인지적 차원은 무엇인지, 이 이미지에 의한 소통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지적 기제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 이미지의 사용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등과 같은 수많은 물음이 제기된다.

본 논의의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이미지로 사고할 때, 대상에 대해 매우 집중하고 몰입하여 사고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대상을 더욱 깊이 있고 폭넓게 다루도록 하여 사고를 유발하고 활성화하는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특정 이미지에서 다양한 일화와 다양한 생각, 느낌, 정서들을 떠올리며 사고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다양한 일화와 생각들은 대화를 촉발하고 활성화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이는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하는 작용을 하여 대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사고를 유발하는 이미지의 인지적 기능에 대한 본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고, 이미지 논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지의 인지적 측면들은 예술가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인지 방식의 핵심으로, 이는 그동안 학문의 영역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감정, 창의성, 공감, 소통과 같은 21세기에 요구되는 인간 핵심 역량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경험의 측면들을 밝혀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회과학연구에서 이미지의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인간 경험의 문제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상담과 심리치료의 영역에서도 언어적 상호작용에 크게 의존하던 치료의 실체가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와 같이 예술을 매개로 하는 치료요법들로 크게 확장되어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이미지의 인지적 측면들이 삶에서의 다양한 경험의 측면을 밝혀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예술과 과학의 융합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지의 인지적 기능에 대한 연구는 예술과 과학의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창조적 지성과 소통의 더욱 큰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인간 경험의 문제에 접근하는 예술 또는 이미지 기반 연구는 새로운 학문의 대안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S. McNiff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사실 나는 예술을 통해 인간경험을 탐구하는 아이디어가 특히 예술을 타인에 대한 서비스와 통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예술과 과학의 상호협력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다[21].

References

- [1] M. Y. Lee, "Why is it Visual Thinking?—Consideration in the Culture Cognition Viewpoint". *Korea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Vol. 7, No. 4, pp. 265-285, 2012.
- [2] M. Y. Lee, "Visual Thinking as a Culture Cognition: A Study on the Essence, Role and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Visual Thinking", *Korea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Vol. 8, No. 1, pp. 19-38, 2013.

[3] M. Banks, "Using Data in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2007.

[4] M. Clark-Ibanez, "Framing the Social World with Photo-Elicitation Interviews",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47, No. 12, pp. 1507-1527, 2004.
DOI: <http://dx.doi.org/10.1177/0002764204266236>

[5] E. Eisner, "Art and Knowledge", In J. G. Knowles & A. L. Cole(Eds.), *Handbook of the Arts in Qualitative Research*, pp. 3-12, Sage Publications, 2008.

[6] D. Haper, "Talking about Pictures: A Case for Photo Elicitation". *Visual Studies*, Vol. 17, No. 1, pp. 13-26, 2002.
DOI: <http://dx.doi.org/10.1080/14725860220137345>

[7] L. Pauwels, "Taking the Visual Turn in Research and Scholarly Communication Key Issues in Developing a more Visually Literate (social) Science", *Visual Sociology*, Vol. 15, No. 1, pp. 7-14, 2000.
DOI: <http://dx.doi.org/10.1080/14725860008583812>

[8] S. Weber, "Visual Images in Research", In J. G. Knowles & A. L. Cole(Eds.), *Handbook of the Arts in Qualitative Research*, pp. 3-12, Sage Publications, 2008.

[9] E. Eisner, "Forms of Understanding the Furture of Educational Research". *Educational Researcher*, Vol. 22, No. 7, pp. 5-11, 1993.
DOI: <http://dx.doi.org/10.3102/0013189X022007005>

[10] J. Berger, "Ways of Seeing", Penguin Books, 1990(first published 1972).

[11] R. Schönhammer, "Einführung in die Wahrnehmungspsychologie", Facultas Verlags- und Buchhandels AG, 2009.

[12] S. K. Langer, "Problem of Art: Ten Philosophical Lectures", Scribner, 1957.

[13] R. Arnheim, "Wir denken zu viel und sehen zu wenig. Im Gespräch": *Psychologie heute*, Vol. 6, No. 4, pp. 23-29, 1979.

[14] R. Arnheim, "Visual Think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15] R. Arnheim, "Thoughts on Art Education", The J. Paul Getty Trust, 1989.

[16] J. Prosser, "The Status of Image-Based Research", In J. Prosser (Eds.), *Image-Based Research: A Sourcebook for Qualitative Research*, pp. 97-112, Falmer Press, 1998.

[17] M. Polany, "The Tacit Dimension", Peter Smith Publisher, 1983.

[18] K. M. Lee, J. K. J, "Art Therapy: An Introduction", Hakjisa Publisher,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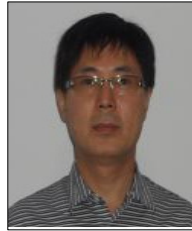
[19] J.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Sage Publications, 1998.

[20] D. Perkins, "The Intelligent Eye: Learn to Think by Looking at Art", The J. Paul Getty Trust, 1994.

[21] S. McNiff, "Art-Based Research", In J. G. Knowles & A. L. Cole. (Eds.), *Handbook of the Art in Qualitative Research*, pp. 29-40, Sage Publications, 2008.

이 모 영(Mo-Young Lee)

[정회원]



- 1985년 2월 : 고려대학교 심리학 과 졸업
- 1989년 2월 : 독일 Katholische Univ. Eichstaett 심리학과 (심리학 석사)
- 1996년 2월 : 독일 Katholische Univ. Eichstaett 심리학과 (심리학 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상담산업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인지심리, 지각심리, 시각적 사고, 이미지